

# 대중가요 노랫말속의 현실의식

## - Text로서 강산에 4집의 노랫말 분석을 중심으로 -

정우일  
국제대학 실용음악과  
e-mail : garam051@naver.com

### A Study on realities in Popular Songs' lyric

#### - Semiotic analysis of 'Kang San-ae's 4th album' Lyrics as a Text -

Wooil Joung  
Dept. of Applied Music, Kookje College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악의 정신과도 같은 노랫말의 분석, 특히 '강산에 4집'에서의 노래가사가 갖고 있는 현실의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4집은 전작들에 비해 사회나 전쟁 혹은 어떤 불합리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이 없어지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의 가사분석을 통해 어떤 의식을 내포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1. 서 론

한국 대중음악의 노랫말을 분석해 보면 가끔 재미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글쓴이가 언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 대강은 감이 오기 때문이다. 이는 주변의 노랫말을 쓰는 사람들을 살펴봐도 비슷 한데, 처음 글을 쓰는 사람들의 성향은 대부분 자유, 자신의 포부 혹은 음악에 대한 열정에 대한 글을 많이 쓰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사회나 정치에 대한 반항심리가 많이 들어간 글을 쓰게 되고 그 다음단계가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글에 많이 이용하곤 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은 모든 부분에서 의미의 함축성에 대해 고심하고 그것을 절제의 미를 살려 글을 많이 쓰고자 한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니다. 단지 보편적으로 노랫말을 쓰는 일종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산에의 1집에서부터 점점 짙어진 반항적 앨범의 성격이 3집에서는 마치 이제 사회를 떠나거나 사회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이나 한 듯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면 4집에서부터는 그 반항의 기질이 한풀 꺾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의미로 볼 때 4집의 강산에는 젊지만, 아직 산전수전 다 겪은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총 10곡 중에 20%인 2곡이 아직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반항적인 내용의 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게다가 포크가 가지는 Protest적 성향을 아직은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풀 꺾인 그가 과연 현실의 내용을 어떻게 노랫말로 표현을 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승화시켰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본 론

##### 1)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표 1]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의 모티브 분석

가사	의미 분석
<b>모티브 1</b>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연의 힘을 거슬러 오르면서 까지 귀소본능을 가지고 있는 연어들의 모습 이는 곧 거대한 힘에(IMF 혹은 정부의 무능한 힘)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이 있으므로 IMF로 인해 몰락했을지라도 그 거대한 힘(IMF 혹은 정부의 무능한 힘)을 이겨낼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시사.
그 언제서 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 오는 이 길	-뒤돌아보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자신의 삶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 특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한 IMF때 가졌던 자신의 고통
<b>모티브 2</b>	-앞으로도 이 험난한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름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길(IMF)이 험난함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 일지라도	-IMF를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
딱딱 해진 발바닥	-역시 IMF를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끈기 있게 노력함.
걸어 걸어 걸어 가다보면	-IMF를 이겨내고 싶은 희망.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앞으로 그렇게 될 것 이라는 자신감
<b>모티브 3</b>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모티브 2와 동일, 자신이 지금 노력하는 것이 아직 눈에 띄지 않고 막막함
별빛조차 없는 길 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모티브 2와 동일, IMF를 이겨내고 싶은 욕망과 그렇게 되기 위해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것 이라는 희망 시사.
걸어 걸어 걸어 가다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b>모티브 4</b>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아직 자신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
수 없이 많은 걸어 가야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아직도 자신에게는 기회가 있고 해야 할일이 있음에 감사.
그래 다시 가다보면	-IMF로 인해 한번 쓰러졌을지언정 다시 시작하면 됨을 시사.
걸어 걸어 걸어 가다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부단한 노력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IMF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마저도 감사하게 될 것임
<b>모티브 5</b>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어깨 떨구고	-IMF 혹은 다른 어려운 일이 닥쳐서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한숨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희망을 잃지 말 것을 시사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알을 한번 낳기 위해 작은 연어 한 마리도 거대한 자연의 힘을 거슬러 오르려 죽을힘을 다해 오르는데, 우리도 IMF라는 거대한 힘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계속 노력하자는 의미

들 알만한 곡일 것이다. 99년은 한창 IMF가 모든 아버지들을 힘들게 할 때였다. 이들에게 힘을 주고자 만든 곡이었다. 모티브 1에서는 자연의 힘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신비한 귀소본능을 자신의 처지에 비유하며 얼마나 더 가야, 알을 낳는 연어들처럼 자신의 이 힘든 여정이 어디까지인가 걱정을 하고 있다. 모티브 2와 3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방관하거나 비판만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 혹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면 언젠가는 빛이 있을 것 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모티브 4에서는 이제 그 마저도 초월하여 자신이 아직 살아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 감사 하며 언젠가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험난한 인생역정 마저도 감사해 올 날이 있을 것 이라고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모티브 5에서는 자신의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좌절하지 말 것을 이야기 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

2) 억지

[표 2] 억지의 모티브 분석

가사	의미 분석
<b>모티브 1</b>	
너무나 힘든 나의 매일 아침을 어김없이 찾아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네	-밤에는 술, 억지로 일어나는 아침 이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직장인의 모습.
어젯밤의 술이 채 깨기도 전에 건방진 알람이 시끄럽게 하네	
가까스로 눈을 떠 준비하는	-억지로 출근 함
출근길 나를 너무 무겁게 해 먹히지도 않는 밤 안 먹으면 안되나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짜증이 난다!	-억지로 밥을 먹음
그래도 먹자 정말 어쩔 수 없어	
고생하는 위장의 평활 위해	-모든 것이 억지로 시작 하는
억지 같은 아침에 지각할지 모르니 서두르자 출근길을	아침이 되어 버림. 자신이 바라는 삶은 아님. 그래도 항상 건강은 알아서 챙겨야 하는 독신의 모습
<b>모티브 2</b>	
밀린 자동차 마음 초조해 지네	-상습적인 교통체증, 돼지 같은
우리 돼지 같은 과장 화난 얼굴	과장=제도권에 대한 저항
떠오르고	-지각하면 인사사고파에 걸림.
진담나게 달려 도착한 사무실	현대인의 또 다른 병폐=체제에
산더미 업무만 기다리고 있네	맞춰서 살아야야 함
하기 싫었던 공부 할 수밖에 없었네	-공부하기 싫었지만 취직을 위해
어렵게도 다닌 대학	공부하였고, 그로 인해
그래서 이제 겨우 취직한 지금	취직하였는데 자신이 바라던
모습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삶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99년에 발표된 곡으로 나이를 떠나서 웬만큼은 다

<p>짜증이 난다!</p> <p>오늘도 내게 우리 돼지 과장님 자꾸자꾸 술을 권해오시네 사양하고 싶어도 사양할 수 없는 몸 억지 같은 밤이 오네</p>	<p>있음에 염증을 느낌</p> <p>-돼지 같은 과장=기존의 제도권, -‘사양할 수 없는’은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자신의 모습</p>
<p><b>모티브 3</b></p> <p>춤 추는 밤 허전해진 마음에 지쳐있는 내 발걸음 텅 빈 집을 들어섰네 습관적인 일상 혹시 하는 맘에 응답전화기를 들어 보았더니</p>	<p>-인생무상, 허무, 외로움</p> <p>-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종의 하나</p>
<p>어느 때와 똑같은 걱정스런 목소리 변함없는 내 어머니의 소리</p> <p>“밥을 굶지 말아라 술은 몸에 안 좋다”듣고 있는 코끝이 자꾸 찡해 오는데 외로운 이 밤 전혀 오지 않는 잠 달랠 길이 있다면 좋겠지만 무서운 아침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잠을 잘 수밖에</p>	<p>-어머니 = 항상 자식을 뒤에서 바라봐 주시는 존재</p> <p>-이런 저런 고민으로 잠이 오질 않으나, 다시 반복되는 내일 아침의 두려움으로 억지로 잠을 청함</p>
<p>I FEEL BAD!!</p>	<p>&lt;자신의 기분이 안 좋음을 한번 내 뱉어주고 잠을 청함&gt;</p>

총 10곡 중 사랑에 관련된 가사가 4곡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의 전 앨범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의 사회를 보는 비판적 시각이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위의 ‘거꾸로 장을...’의 분석에서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언젠가는 지금 힘든 것이 언어가 회귀하듯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암시를 띄고 있고, ‘억지’의 분석에서는 ‘나’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든 직장인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외로움을 노래하며 대신 그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앨범에서는 이렇듯 대표적인 노래를 통해서 그의 변화된 현실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듣는 이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현실에 대한 보편적 틀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노랫말 위주로 앨범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이상주의적 시각이나 형이상학적인 앨범의 틀을 깨고 현실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혹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회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계속 되는 앨범에서도 이러한 그의 성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지영, “이상의 시대 반항의 음악”, 문예마당 1995
- [2] 김치수 외,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3] 백선기,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4] 임진모, “젊음의 코드 록”, 북하우스, 2003
- [5] 강연진, “한국 근대 대중가요 형성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6] 전해주,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위상과 의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7] 한나영, “90년대 후반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소비자 성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전부 억지스럽게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다.

모티브1의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출근하는 것, 모티브2의 출근길, 밀린 업무, 과거의 대학공부, 술등은 자신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만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였고, 모티브3에서의 텅 빈 집은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되는 반면, 이 모든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응답기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음성이다. 이는 모티브2의 ‘돼지 같은 과장’과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돼지 같은 과장’은 기존세력의 주체로 약자를 억누르거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세력(혹은 약한 세력)을 길들이는 주체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진다. 모티브3에서의 ‘잠’은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자기 암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결론

강산에 4집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랑에 관련된 가사가 4편, 인생을 노래한 가사가 3편, 가족과 전쟁(남북 문제 포함)관련이 1편, 사회비판 2편, 분포되어있다.